

광주시-기업들 '거대 언어 AI 모델 개발' 힘 모은다

융합사업단, 마음AI 등 30여개 기업과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협력 모델 창출...국내 산업 생태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시와 AI기업들이 인공지능 언어 모델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는 챗봇, 대화형 시스템, 문서생성과 같은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거대 언어 AI 모델 개발 선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 광주시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에 따르면 AI사업단과 마음AI, 리버벤스 등 AI기업들은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AI기업 ‘리버벤스’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준하 AI사업단장과 유태준 마음AI 대표, 이흥노 리버벤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마음AI’는 자체 개발한 AI 핵심 알고리즘, AI 엔진, 플랫폼 및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통합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AI 산업에 기여하

는 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완전자율주행모델 ‘WoRV’, 기업용 ‘RAG Chatbot’, 초개인화 AI 서비스 개발 툴 ‘마음오케스트라’, AICC ‘보이는 음성봇’, 그리고 24시간 365일 일하는 ‘AI Human’ 등이 있다.

‘리버벤스’는 AI 개발의 장애요소인 고품질 학습 데이터 확보와 교류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학습 및 추론 서비스 네트워크인 MY AI Net (마이 에이아이 넷)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AI사업단과 AI기업들은 이날 협약에 따라 AI사업단이 보유한 AI 데이터센터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우수한 성능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AI산업과 자연어 처리 기술 발전에 공동 협력하게 된다.

특히 마음AI, 리버벤스를 비롯한 30여 개 스타트업이 한국어에 초점을 맞춘 거대 언어 AI 모델 (Large Language Model·LLM) 개발을 위해 공

동 연구 등에 나서는 게 이번 협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또 AI전문가 중심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최적의 AI 학습 환경 제공,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 개발 협업체 운영 등에 집중하고, AI 산업 전반에 기여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 개발 협업체’ 운영도 구체화하게 된다.

AI사업단은 이번 협약으로 파운데이션 공동 모델이 구축되면 글로벌 거대 언어 모델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공성 확대와 AI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 AI 데이터센터의 활성화, 국내 AI 산업 생태계 확산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하 AI사업단장은 “AI기업들이 힘을 모아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파운데이션 공동 모델을 비롯한 다양한 AI 융합 사업 협력 모델을 창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 AI 산업 발전과 AI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준하(가운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리버벤스 사무실에서 유태준 마음AI 대표(오른쪽 사진), 이흥노 리버벤스 대표와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강기정 시장, 中 광저우서 글로벌 도시 외교

관광 활성화 행사 참여...세계 100개 도시 시장과 도시 현안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의 자매도시 중국 광저우에서 세계 주요 100여개 도시 대표들을 상대로 글로벌 도시 외교를 펼치고, 민주·인권 대표 도시 광주의 매력을 알렸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6~9일 광저우를 방문해 국제도시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해 관광 활성화 행사와 콜롬비아 보고타·호주 다윈시장과 면담 등 다양한 도시외교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특히 마지막날인 지난 9일 열린 ‘제3회 세계 시

장 포럼’에서는 세계 100여 도시 시장 등과 만나 도시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포럼 개막식에서 세계 지방정부연합 총회 회장, 세계 대도시연합 총회 회장, 광저우시장에 이어 네 번째로 축사에 나선 강 시장은 “광주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포용성에서 찾는다”고 소개했다. 기존연설에서도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을 받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주제로 민주 도시 광주의 포용성을 알렸다.

1996년 자매결연 후 교류를 이어가는 광저우는

물론 보고타, 다윈 등 해외 도시와도 교류의 폭을 넓혔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독일 라이프치히·뉘른베르크, 미국 샌안토니오 등 해외 자매·우호 도시들과 인공지능(AI), 문화·예술, 스포츠 등 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베트남 응에안성,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등과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만남으로 광주의 기업, 산업, 문화예술을 수출하며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후 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에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지정 협력

전담팀 구성 교육발전 모델 개발·공모 사업 발굴 등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11일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교육청은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에 대응해 실무협의를 갖고 교육발전특구 전담팀(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 두 기관은 광주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개발하고 공모에 나설 사업 발굴에 나서는 등 공모를 위한 준비 작업도 강화한다.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모델 마련, 교육개혁 과제 지원사업 발굴, 교육발전특구 연계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앞으로 추진방향 설정, 세부 사업 발굴,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내년 2월 시범운영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현 광주시 교육정책관은 “시교육청과 협력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인재들이 광주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상’

‘전남형 만원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해소 호평

전남도의 역점시책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지자체 ‘우수상’을 받았다.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안부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서울,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와 117개 기초지자체(인구감소지역 89·관심지역 18)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남도는 청년·신혼부부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해소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 최초

‘전남형 만원주택’ 1천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 2843억원을 들여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청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아파트를 2035년까지 도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에 새로 지어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형태, 선호시설 등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과 취향을 최대한 반영하고,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정 및 청년주거안정

기금 조성 등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종우 전남도 인구정책관은 “전남형 만원주택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선도모델로 많은 지역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역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만원주택과 연계한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 등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년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남 벼 재배농 경영안정비 570억 지급

13만8000 농가 ha당 평균 66만원

전남도가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원을 지급한다. 지난 1월부터 전남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13만8000여 농가가 지급 대상이다.

ha당 평균 66만원으로, 농가별 2ha 한도에서 직불금 형태로 지급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가입 농지는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0.1ha 미만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남도가 쌀 시장개방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의 지속 유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직불금과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특히 2001년 18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지난 해까지 투입한 총사업비가 1조2600억원에 달한다.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는 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광주
시인

장정인 시집 043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